

민선 8기 전남도정 밑그림 나왔다

비전·공약위, 100대 공약·60대 정책과제 등 제시 도, 도민 의견 수렴한 후 내달 최종 확정·발표 계획

전남 비전·공약위원회가 미래성장동력과 행복시책 등을 담은 민선 8기 밑그림을 제시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에서 도민보고회를 열어 민선 8기 전남도 정책 방향과 100대 공약·60대 정책과제,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전남도에 전달했다.

보고회에는 최일 공동위원장, 위원, 고문, 전남도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도는 미래성장동력산업과 도민 행복시책 등을 담은 보고서를 토대로 민선 8

기 공약사항 실천계획서를 수립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비전·공약위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김영록 전남지사 공약 검토와 함께 정책과제 발굴 활동을 펼쳤다. 김 지사가 선거기간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 주민 신뢰성 등을 검토했고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을 정책과제로 찾아냈다.

도에 제안할 과제 목록을 확정하고 과제별 실행방안 등을 다듬어 8대 분야 20

개 전략과제 아래 100대 공약·60대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8대 분야 주요 공약·정책과제로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 분야에는 ▲반도체 산업 전남·광주 공동육성(공약) ▲남해안 우주산업벨트 조성(공약)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조성(정책과제) 등이 제시됐다. '첨단 전략산업으로 청년 일자리 대거 창출' 분야에는 ▲첨단·전략산업 30조원 투자유치(공약)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공약) ▲방폐기술 인력개발원 건립(정

책과제) 등이 담겼다.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분야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공약)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공동 개최(공약) ▲에너지 밸리 중심 에너지 메가시티 조성(정책과제) 등이, '문화·관광 융성시대 선도' 분야는 ▲지리산·섬진강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조성(공약) ▲정보통신기술(ICT)문화관광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공약) ▲도심 속 명품화천 조성(정책과제) 등이 포함됐다.

'농수축산업의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육성' 분야는 ▲첨단 농업융복합지구 조성(공약)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공약) ▲국립농산업 빅데이터센터 설립(정책과제) 등이, '기반시설(SOC) 르네상스로 초광역 메가시티 전남 도약' 분야는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공약) ▲호남선 고속철도(KTX) 2단계 조기 준공(공약) ▲동부-중부-서부권 연결도로 개설(정책과제) 등이 제시됐다.

'도민 제일주의와 현장 소통' 분야는 ▲호남 청년가게미 운영(공약) ▲우

리동네 복지공동체 확대(공약) ▲100세 건강 체육활동 지원(정책과제) 등이, '전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이 되는 시대 실현' 분야에는 ▲전남 사랑에(愛)서포터즈 100만명 육성(공약) ▲국립전남의과대학 유치(공약) ▲국제학교 설립(정책과제) 등이 확정됐다.

한편, 이날 발표된 내용과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담은 영상은 전남도 대표 유튜브 채널 '옴nip남튜브'에 올려 도민과 민선 8기 전남도의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변은진기자

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오는 5일까지 음식점·전통시장 대상 유통질서 확립

전남도는 31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5일까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등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 대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보양·횡감·간편식 수산물인 뱀장어, 미꾸라지, 활참돔, 낙지를 비롯해 최근 수입량이 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활가리비, 활참돔, 냉동부세, 냉동꽃게 등에 집중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휴가철 소비자가 집중되는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대형 유통업체, 관광지, 수입유통이력 대상업체(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전남자치경찰, 도민 우수 제안 6건 발굴

'걷기 어플리케이션 통한 주민 순찰 활성화' 최우수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31일 "2022년 전남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강진 박영택씨의 '걷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민참여 순찰 활성화'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도민의 소원과 참여로 주민 치안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면서 제시된 제안을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3개 분야에 총 4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를 대상으로 실무부서 검토와 도 경찰청·교육청 등 분야 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총 6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확정했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걷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민참여 순찰 활성화' 아이디어는 주민이 걷기 모바일 어플(워크온 등)을 활용해 취약 시간·장소 도보

순찰, 코스 완주, 목적지 방문 완료 등을 수행한 경우, 쿠폰이나 기념품을 지급해 한층 더 경찰력을 보완하자는 내용으로 심사위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우수상은 목포 임광덕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남도 범죄피해 어르신 조기 발굴 시스템 구축', 여수 한재영씨의 '터널 내 교통사고 예방 신호기 설치'로 확정됐다.

이 밖에도 '안심 거울로 범죄예방', '시니어와 함께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 '전남자치경찰 이모티콘 제작' 등의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받았다.

전남자치경찰위는 선정된 우수 제안을 관련부서 검토, 실무회의 등을 통해 보완하고 치안정책 수립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만간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공모에서 제안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감사드린다"며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도민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전남 섬 해설 '섬코디네이터' 호응

전남도는 31일 "섬 방문객에게 섬의 가치를 알리고 명소를 안내하는 섬 주민 여행 파트너 '섬코디네이터' 활동이 관광객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섬코디네이터는 2년에 걸쳐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심화교육 수료 후 자격 면접을 통과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수여한다.

올해는 16개 섬 69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까지 통합 모듬교육을 진행했으며 하반기 실무 능력을 위한 섬별 현장 방문 교육과 성과공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전남 가고 싶은 섬 14개 섬에 41명이 활동 중이다.

올해는 16개 섬 69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까지 통합 모듬교육을 진행했으며 하반기 실무 능력을 위한 섬별 현장 방문 교육과 성과공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전남 가고 싶은 섬 14개 섬에 41명이 활동 중이다.

기적의 순례길로 섬을 가꾸는 신안 기점소약도를 섬코디네이터와 함께 여행한 목포의 한 관광객은 "아는 사람이 없는 섬이었지만 섬코디네이터가 옆에 있어 든든했다"며 "섬에 대해 몰랐던 부분까지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도는 관광객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섬코디네이터 상표정체성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섬 방문자에게 더욱 안정감을 주고 섬코디네이터에게는 책임감을 높이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변은진기자



광주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협의회 김광진 광주 문화경제부시장이 지난 29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커뮤니티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협의회에 참석, 안전성의 및 토론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新경제 광주 플랫폼' 등 우수 적극행정 선정

시, 개인·팀 각 3건...특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광주시가 미래모빌리티 신(新)경제 광주 플랫폼 구축 등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 개인 부문과 팀 부문으로 구분해 우수사례 각 3건을 최종 선발했다.

특히 직원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 선정을 위해 사전에 온라인직원투표와 온라인국민투표를 실시했으며, 철저한 실적검증과 예선심사를 거쳐 '제2차 광주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우대등급을 결정했다.

이날 선발된 개인 부문 우수사례는 ▲미래모빌리티 신(新)경제 광주 플랫폼 구축(최우수, 자동차산업과 송운대 주

무관) ▲농로가 사라져 10년간 경작을 못했던 한 밭의 농민의 숙원을 적극행정으로 달래주다(우수, 상수도사업본부 박성우 주무관) ▲문화도시 광주, 전국 최초 문화예술인 특화 안심보험 가입(장려, 문화도시정책관 박주용 주무관) 등 총 3건이다.

팀 부문 우수사례는 ▲국내 최초 양자 암호통신을 이용한 광주시 감염병대응팀(GIDR Talk) 개발·운영으로 코로나 19 대응효과를 극대화하다(최우수, 보건환경연구원 김민지 주무관 외 3명)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운영으로 과도한 규제에 따른 개별심의 해결방안 제시(우수, 도시경관과 기운 주무관 외 2명) ▲아빠처럼 든든하고 엄마처럼 안전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장려, 출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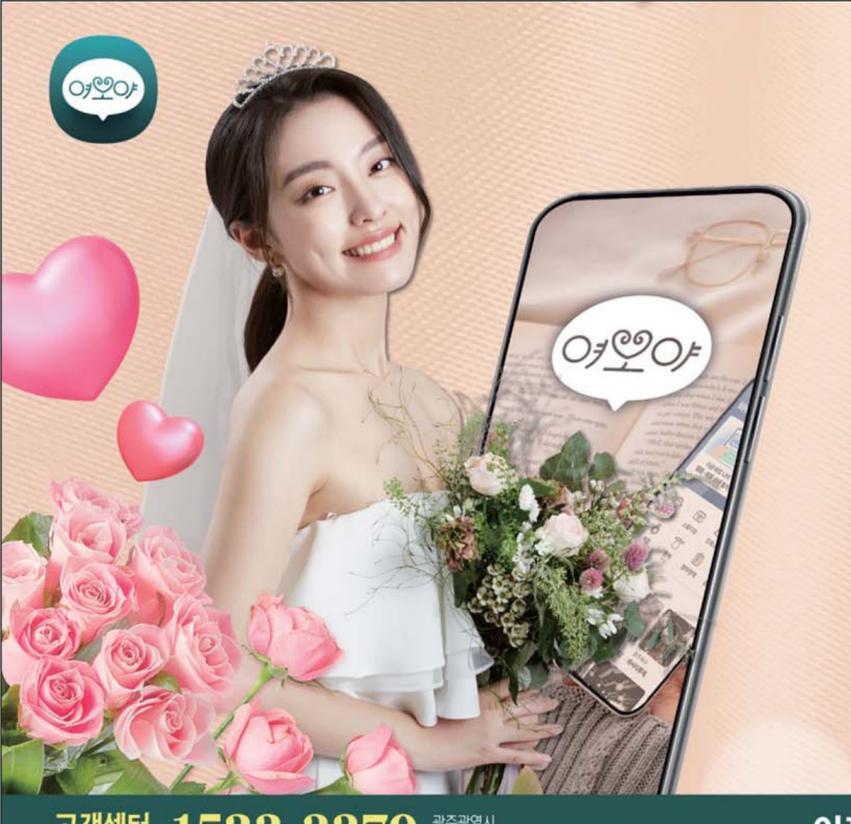
육과 나건중 주무관 외 3명) 등 총 3건이 선발됐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 특별승급, 실적가산가점, 포상휴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올해는 직원들의 적극행정 참여 제고를 위해 국내 산업시찰 우선 선발, 연말 적극행정 우수부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추가 신설했다.

이 밖에도 기존 제도와 관행에 얽매지 않고 적극행정으로 시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전 직원에게 전파해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타 지자체에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개인전 최우수 사례는 9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한다. /박선강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